

속보 FLASH

전체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생활/문화
- 세계
- IT/과학
- 스포츠
- 연예
- 칼럼

실시간으로 전하는 언론사 주요뉴스

핫이슈

중부세 개편 논란

2009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

한미 FTA 비준 논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 美금융위기 경기침체 오나

테마뉴스

화제의 연구 '시선 집중' 판결 따뜻한 세상뉴스 TV는 내 친구

포토 TV

뉴스 홈 > 속보 > 전체기사

화면 조절 아이콘



코리안 뉴욕커 4인방, 뉴욕여행기업 '뉴욕커 투어' 오픈

기사입력 2008-11-20 14:27



한국과 미국의 무비자 시대가 열렸고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오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특히, 뉴욕은 세계 최고들이 모이는 최고의 도시. 이곳에 최근 코리안 뉴욕커 4인방이 특별한 준비를 했다. 뉴요커투어(대표 이승원 www.newyorkertour.com)는 뉴욕현지에 New Yorker Life and Style로 본사를 둔 기업으로 뉴욕 현지의 사업가 Calvin Yi(한국명: 이승원)사장, 여행업계의 15년 외길만을 걸어온 Justin Kim(한국명: 김인준)사장, 진정한 뉴욕의 맛과 멋은 내게 배워라, 베스트셀러 "뉴욕 아이디어"의 저자이자, 현 F.I.T. 교수 박진배,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뉴욕과 사랑에 빠진 방송인 최호진!

이렇게 뉴욕을 사랑하는 뉴요커 4인방이 오랜 뉴욕생활의 경험과 여행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품투어(Luxury Tour), 테마투어(Theme Tour), 맞춤형 귀족투어(Private Tour) 등의 테마를 갖고 차별화한 "특별한" 여행을 위해 준비했다.

이승원 대표는 "그 동안 여행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무언가 부족한' 뉴욕여행의 한계를, 뉴요커투어에서 가려운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요커투어



분야별 주요뉴스

더보기

- 시사: 연예/스포츠, 경제/생활
- 사생활 통보 등 연예인 노예계약 충격 손예진 "정신 차리라고 주신상" 비, 김혜수에게 장미 다발로 빛 받아 추성훈, '올해의 좋은 광고모델'
- 카카 "포르투갈전 압도적 승리였다" 日언론 "이혜천, 야쿠르트 입단 유력" "손민한 꼭 잔류" 로이스터 설득 통해 레알, 크레스포-아르샤빈 영입 가시화

이슈 화제의 판결

- 제사주제 嫡庶불문 장남 우선..... 대법 '제사 주제는 장남이 말아야'
- 대법 '선친유해 소유권' 장남 ... '겉돈 못받아도 계열끼리 책임 ...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 사회 | 섹션종합 |
|-------------------------|------|
| 축음으로 끝난 벤처기업 대부의 ... | |
| 뜨는 직업 과연 10년 후엔? | |
| 북한산-도봉산에 웬 산악열차? ... | |
| 고교서 '춧불집회 참석' 학생에 ... | |
| 사상 최대 다단계 사기 적발 | |
| '극빈층 대학생들, 남는 장학금 ... | |
| '사이다 한병 훔쳤다가..' 20대 ... | |
| 경제위기가 지하철 파업 막았다 | |

실시간 언론사 주요뉴스

실시간 언론사 주요뉴스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한 눈에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연합뉴스 보도자료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블로그/카페 담기 질문하기

AD 요즘 부쩍 가슴이 너무 아프다?
사랑보다 건강이 먼저다! 대처법 대공개!

네티즌 의견

나의 댓글지수 블라인드 설정 ?

의견을 작성하시려면 클릭하세요

- ▲ 웅진 이정희 사무국장,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 **pho**
- ▲ 미니카의 유혹 **pho**
- 코리안 뉴욕커 4인방, 뉴욕여행기업 '뉴욕커 투어' 오픈 **pho**
- ▼ BMW의 미니카 **pho**
- ▼ "깜찍하죠?" **pho**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맨위로

[뉴스 도움말](#) [이용약관](#) [뉴스 운영원칙](#) [개인정보취급방침](#)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게시중단요청서비스](#) [24시간 안내센터](#)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제공사에게 있으며 NHN과는 무관합니다.

Copyright © NHN Corp. All Rights Reserved.